

점프 비거리 탁월 ‘포스트 김연아’

2014! 우리가 미래다

⑬ 차세대 ‘피겨 요정’ 박소연

2010년 최연소 국가대표 등극 라이벌 김해진 넘어 ‘일취월장’ “우상과 함께 첫 올림픽 설렌다”

남정훈 기자

지난해 ‘골프 여제’에 등극한 박인비는 최나연, 신지애 등과 함께 대표적인 ‘박세리 키즈’다. 1998년 US여자오픈 때 박세리가 보여준 맨발 투혼을 보고 많은 어린 여학생들이 클럽을 잡았다. 이들은 어느덧 성인으로 성장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주름잡고 있다. 피겨엔 ‘김연아 키즈’가 있다. 2000년대 중반 혜성처럼 등장한 김연아가 세계무대를 휩쓸고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따내면서, 이를 롤모델로 삼은 어린 여학생들은 스케이팅화를 신기 시작했다. ‘포스트 김연아’로 주목받는 박소연(17·신목고·사진)도 김연아를 보며 꿈을 키웠다.



올림픽 무대가 처음이라 많이 설레고 긴장된다. 열심히 연습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겠다”며 당찬 각오를 밝혔다.

원래 박소연은 발레 선생님인 엄마의 영향으로 발레를 했다. 그러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스케이팅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피겨 선수로 활동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점프의 비거리가 탁월한 것이 김연아를 닮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눈부시게 성장했다. 2010년에는 최연소 국가대표에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그러나 박소연의 앞을 항상 막아서던 라이벌이 있었다. 동갑내기 친구인

김해진(과천고)이다. 이번 소치 올림픽에도 함께 출전하는 김해진은 박소연보다 항상 한 발 앞서 나갔다. 김해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종합선수권 3연패를 달성하며 국내 1인자로 주목받았다. 박소연은 3년 연속 2위에 만족해야 했다.

박소연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이제는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구도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박소연은 소치 올림픽 티켓 두 장이 걸렸던 지난해 11월 전국피겨스케이팅 랭킹대회에서 김해진을 2위(155.24)로 밀어내고 1위(169.48)를 차지했다. 지난 5일 끝난 종합선수권에서도 박소연은 178.17로 김해진(159.75)보다 앞서며 김연아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박소연은 김연아에 이어 한국 피겨를 이어갈 대들보다. “굉장히 부담되는 게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연아 언니가 은퇴하면 어떻게 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낼 수 있을까 말이다. 연아 언니처럼 큰 선수가 되겠다.” 박소연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반 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